

●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던져 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루카복음 14장 34절 ~ 35절)

짠 맛을 잃은 소금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 세상의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나톨 프랑스의 말이다.

소금과 같은 사람은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행복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사람이다.

소금과 같은 그대가 되라.